



◆ 새마을事業에 2百萬원기탁

大韓商議 朴仁天부회장



박인천(朴仁天·72·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三陽타이어 및 한국合成 고무工業代表)씨가 새마을 사업에 보태 써달라고 2백만원을 4월12일

전라남도에 기탁했다.

◆ 韓國타이어(株)서

日·木下昇氏 招請

自動車關係發表會開催

韓國타이어製造株式會社(代表=張善坤)에서는 日本의 權威있는 自動車 評論家이며 自動車엔진 專門家이고 世界的인 自動車競走選手權자인 木下 昇氏를 招請하여 高速道路開通의 年輪이 짧고 各種 車輛事故가 頻發하는 우리 나라 自動車 部門 關聯業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先進技術을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行事를 舉行했다.

1. 日時 1972年 4月 25日 午後 4時
2. 場所 中央青少年會館(乙支路二街三街中間)
3. 發表內容 ① 自動車競技關係 ② 스피드關係映畫 ③ 엔진과車輛의壽命 ④ 스피드와 車輛의 安全度 ⑤ 高速走行時運轉方法 ⑥ 高速走行前點檢事項 ⑦ 質問(質問은 보드 낮트까지 車輛에 關係된 것은 다 좋음)
4. 自動車示範: 午後 6時 孝昌運動場

◇ 그리고 木下 昇氏의 經歷은 다음과 같다.

1. 1967年, 1969年全日本참피온(二個年優勝은 前例 없는 일임)
2. 入賞率: 國際競技(英國, 美國, 獨逸, 伊太利, 瑞西, 멕시코, 싱가포르) 및 國內競技等 80餘回出戰, 90% 以上入賞(自動車故障으로 因해 完走 못한것 以外)
3. 特技: 엔진關係 專門家로서 엔진開發에 參與(自己車는 엔진은 勿論 핸들, 보드, 낮트, 까지 直接考案 및 組立) 自動車使用油(揮發油, 潤滑油) 및 타이어 Test 專門家
4. 日本에서의 比重: 自動車評論家로서 木下 昇氏의 評論은 日本自動車業界에서도 權威있음

◆ 韓國타이어 日 市場上陸

日紙報道 性能 좋고 價格競爭서 有利

국내 최대 「타이어」 「메이커」인 韓國 「타이어」(永登浦區·社長 張善坤·資本金 4억5천만원)가 최초로 日本 市場에 상륙, 판매를 시작하게 되자 日本의 「타이어」 업체는 크게 놀라움을 보이고 있다.

韓國 「타이어」(株) 측은 수년전부터 日本 진출을 꾀해오다가 特惠關稅 圓貨切上등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日本 제품 보다 20% 정도 값싸게 판매할수 있다는 전망이 되자 4월 중순부터 曉星物產東京支店(東京都港區·支店長 張潤台)을 통해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국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日本 제품과 가격 경쟁에 뛰어난 韓國 「타이어」가 日本 市場을 겨냥하게 된 것은 ① 勞賃 및 流通 「코스트」가 日本 제품보다 훨씬 싸며 ② 圓貨 切上에 따르는 가격면의 영향 ③ 日本이 「타이어」 제품에 대해 50만 달러까지는 特혜 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에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日本 市場에 제품을 내놓기에 앞서 3월 28일 日本 富士 「스피드·웨이·코스」에서 自動車 評論家 「기노시타 노보루」(木下昇)씨가 한국 「타이어」에 대한 공개 「테스트」를 헌결과 直進 高速 低速 「브레이크」 등 각 성능 면에서 日本 제품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 내려졌으며 이와같은 韓國 「타이어」의 일본 진출 경위는 日本에서 발행되는 日刊工業新聞 4월 11일자 10면 「톱」 기사와 日刊自動車新聞 3월 27일자 및 日本타이어 産業時報 4월 5일자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4월 22일 韓國 「타이어」 관계자는 日本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슬린·스텐드」나 정비 공장을 피하고 부품 판매점 등의 새로운 「루트」를 통해 제품 시장을 침투할 계획이라면서 당분간은 대형 「타이어」를 중심으로 하여 월간 3백본 정도를 유지하다가 수출이 본격도에 오를 내년 여름까지는 월간 3만본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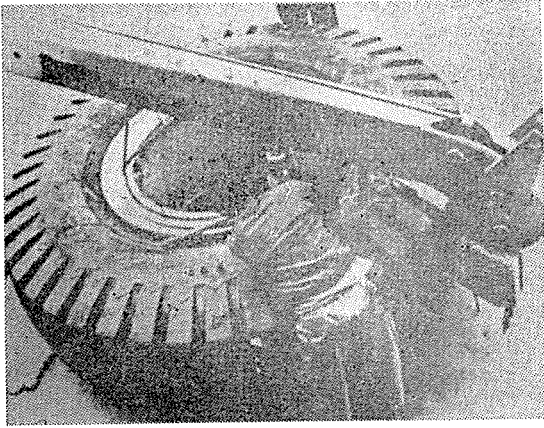
일본의 업계 신문들은 한국 「타이어」가 이미 「모니터」 형식으로 대량 수요자나 경쟁 「타이어」 업체들에 대해 1년 전부터 시장 조사를 겸한 수출의 걸림기지를 만들어 놓은 데 대해 日本 市場이 연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日本의 中小 「메이커」들의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日本 「타이어」 시장 개척에 힘입은 韓國 「타이어」 측은

현재 공장생산능력 연간 50만본을 내던 2월까지의 1백만본으로 늘리기위해 시설확장을 서두르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G·Y의 超大타이어 登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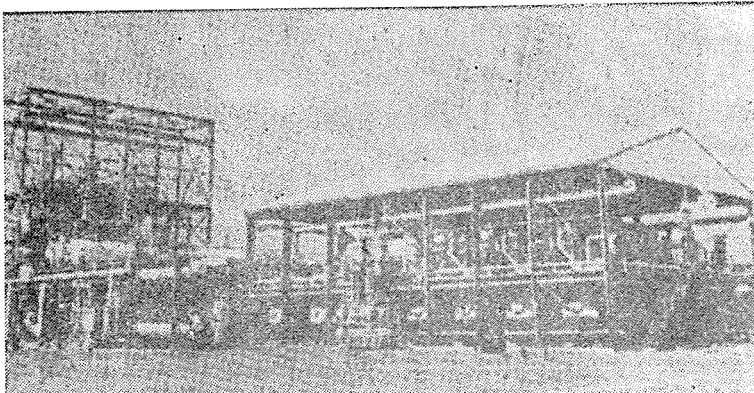
乘用車用의 200 臺分의 材料, 直徑 3.3m 幅約 1m



◆ 韓國合成고무工業(株)

72年 12月 完工을 目標

(既報) 韓國合成고무工業株式會社(代表=朴仁天)가 올 12월까지 建設工事を 完了 試製品 生産을 거쳐 來年 4月부터 生産品販賣를 開始하게 되면 于先 來年中으로 \$400萬의 輸入代替를 이룩할 것이라 한다. 74년에는 \$500萬, 75년에는 \$600萬의 規模로 해마다 代替效果가 커질 판이라 하며 政府의 石油化學系列工業育成計劃에 依해 蔚山工團에 세워지는 韓國合成고무工業은 年間 2萬5千톤의 合成고무를 生産하여 國內需要를 充當할 計劃이라 한다.



韓國合成고무工業을산공장

◆ 對日·타이어(농기구용, 신규) 수출展望

요즈음 日本福岡에 있는 大韓貿易振興公社의 事務所報告에 依하면 特惠對象品目인 農機具 타이어는 당지의 J상사의 수요만도 연 \$360천 정도로서 시장 개척 확대 노력에 따라 그 수출 전망이 기대된다고 한다.

◆ 景氣회복·物價안정책발표

産業合理化 資金 百億방출

公共사업早期집행·建築制限 완화



經濟 5部長官이 景氣回復, 國際收支改善, 物價安定等 當面문제에 대해 合同會見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李洛善상공, 南憲祐재무, 太完善부총리 金甫炫농림, 張禮準건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계속 鈍化되고 있는 景氣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內國稅歲入을 대폭 減縮조정해서 企業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1백억원의 産業合理化 특별자금의 방출, 公共 사업의 早期집행, 官需물자의 早期구매, 건축활동 制限의 완화등 본격적인 需要추진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輸入지원 金融의 事實상 폐지, 關稅감면 幅의 대폭적인 축소등 輸入억제방안과 이에따른 인플레이壓力에 대처할 物價안정책도 동시에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太完善경제기획원장관, 南憲祐재무, 金甫炫농림, 李洛善상공, 張禮準건설등 경제 5部長官들은 2월 14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合同記者會見에서 이와같은 광범위한 當面經濟施策을 발표했다(發表內容全文別項)

이자리에서 南재무장관은 內國稅 축소조정문제에 관해 「稅金은法(稅

率) 대로 거들것이나 올해 經濟動向으로 미루어 덜 견딜지 모른다는 염려아래 무리없이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減縮의 幅은 밝히기를 거절했다.

南장관은 稅收축소에 따른 歲出조정에 대해서는 關稅감면폭 축소에 따른 추가歲入과 일부 事業의 내년도 移越로 배우고 「赤字예산은 원칙적으로 피하겠다」고 밝혔다.

1백억원의 産業합리화特別자금은 財政자금을 財源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방출한다.

政府「經濟시책」全文

景氣對策

① 企業의 부담을 財政, 금융면에서 輕減하는 동시에 企業의 財務構造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 ▲ 租稅歲入을 조정하여 企業등의 부담을 輕減한다.
- ▲ 産業合理化특별자금을 조성하여 長期低利의 産業자금을 공급함으로써 企業의 資金및 利子負擔을 輕減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1백억원을 확보한다.
- ▲ 非營業用 자산의 처분, 株式및 社債인수등에 대한 資金出處조사를 완화한다.
- ▲ 企業의 合併, 系列化를 지원한다.
- ▲ 金利는 저축동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下向調整을 검토하여 企業부담을 輕減한다.
- ▲ 商業어음의 할인, 倉庫證券활용등으로 短期流通資金의 공급을 증대한다.
- ▲ 短資市場의 개발, 株式公開및 社債발행의 촉진등으로 直接金融을 확대한다
- ▲ 不實企業을 選別的으로 과감히 정리한다.

② 景氣를 刺戟하기 위하여

- ▲ 勞動집약적인 公共事業을 早期집행한다.
- ▲ 建築活動의 제한을 완화한다.
 - 가. 不動產 투기 억제세의 控除率인상
 - 나. 地目變更時의 取得稅면제
 - 다. 投融資中 주택자금의 早期방출
- ▲ 農路, 새마을 가꾸기, 農村 투자사업을 早期 추진한다.
- ▲ 官需물자를 早期구매한다.
- ③ 관련 企業에게는 다음과 같은 課題를 적극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 ▲ 企業의 合併,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系列化촉진
 - ▲ 經營의 합리화와 企業의 內部資金충실화
 - ▲ 設備투자의 適正화 非營業用자산의 처분
 - ▲ 過當競爭의 止揚
 - ▲ 근면, 검약, 저축및 創意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企業倫理觀의 扶植.

國際收支改善策

① 輸出入金融의 통합을 하여 輸出을 적극지원한다. 현행 輸出支援金融제도는 移得率이 낮은 産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支援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輸出入금융으로 통합정리 하여 移得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輸出用원자재 國產化촉진, 수출산업의 國內加工度향상등으로 外貨移得率을 높이고 동시에 輸入을 절감하는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輸出信用狀에 의거, 수출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달라당 350원을 융자하며 輸入금융의 경우 積立率을 현행 10%에서 100%로 引上한다.

▲ 융자기간은 135일로 하고 利子率은 6%로 하되 융자기간이 13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一般貸出金利를 적용한다.

▲ 輸入金融支給保證은 이를 폐지한다.

▲ 契約分에 대한 備蓄金融은 종전대로 運用한다.

② 關稅減免제도의 개선

現行關稅減免제도는 그 減免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減免폭을 축소하여 實効稅率을 높임으로써 수입절감, 國產代替財政收入의 증가를 기한다.

▲ 關稅減免은 축소되되 基幹산업, 防衛산업과 法律에 의한 減免은 예외로한다.

▲ 法律에 의한 減免도 불합리한 경우에는 減免을 되도록 줄임으로써 總實効關稅率을 인상한다.

③ 貿易계획상의 수입제한은 전년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또한 觀光收入의 증대, 海外建設의 촉진등으로 貿易外收入을 증대한다.

⑤ 이와같은 조치와 함께 올해 經濟成長에 必要한 物資는 適期에 확보한다.

物價

租稅歲入의 조정, 長期低利의 産業資金의 공급 金利의 下向 조정등으로 企業의 原價 부담을 輕減하여 物價압력을 최대한 排除하는 동시에

① 통화량은 연간 20%선의 증가를 원칙으로 하되 物價및 生産동향에 비추어 彈力的으로 運用한다.

② 價格구조의 합리화로 소비억제및 國產化의 촉진을 기하되 부당한 가격인상을 강력히 단속한다.

③ 가격정책의 樹立에 있어서는 광범한 官民협동의 協議기구를 신설하여 充分히 論議, 검토토록한다.

④ 국민 소비생활의 進進화를 촉진하여 소비수입의 節약을 기한다.

◆ 産業合理化基金 확대

太副總理 景氣 補完對策 발표

정부는 물가안정 景氣浮揚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당면 경제시책의 세부보완 대책을 확정 4월 21일 발표했다. 太完善副總理가 이날 아침 記者會見에서 밝힌 당면 경제시책의 세부보완대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物價문제=① 3·6凍結조치의 당분간 계속 ② 독과점품목의 카르텔해위규제 ③ 公共요금, 官許요금 年內인상不許 ④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환율의 流動化 ⑤ 기업원가절감책과 관련 産業合理化특별기금공급 ⑥ 현재 68억원이 확보돼 있는 調達基金을 확충,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한 비축제강화

▲ 景氣문제=① 公共사업早期 집행과 庶民주택건설 촉진 및 영세민구조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상 일시 借入한도 2백억원을 오는 6월의 追豫를 통해 배증 4백억원으로 증액 ② 內國稅繰上징수지양 ③ 농어촌유희수요의 확대를 위한 高米價정책의 지속, 소득증대사업과 연결되는 새마을 건설사업 적극추진 ④ 통화공급의 확대 ⑤ 金利再引下검토

▲ 國際收支문제=① 주요물자의 장기저리차관에 의한 확보 ② 국내자원 개발과 투자축진등으로 원자재 국산화 시책의 강력추진 ③ 關稅감면폭의 축소 ④ 商業借款한도제의 계속실시와 公共차관도입 확대 ⑤ 의자도입 및 사후관리의 개선 ⑥ 국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현금차관금지 및 물자차관의 엄선.

◆ 버어마의 日本타이어市場

(1970. 12~71. 1) Jetro의 靑靑調査員으로 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버어마에 있어서의 日本製自動車타이어 튜브의 評價는 稱讚과 信賴性이 있어 10數年來 그 우수한 品質과 多岐한 用途에 依據 널리 關係當局, 業者, 유우저어로부터 好評을 받고 있다고 傳해지고 있다. 또 70년에 있어서의 輸入狀況은 日本=319랏트, 印度=1,090랏트, 韓國=975랏트이며 印度 韓國에 이어 第2位에 있으나 이것은 外貨事情惡化 때문에 不得已取한 措置의 結果이며 外貨事情이 回復되는 데로 信賴性 있는 日本제 타이어의 買上은 다시 好調가 될 것이라 고함.

◆ 美國版의 타이어列車

軌道上을 走行하는 未來의 新輸送시스템? 實은 이



것은 GY社製의 高性能牽引트럭타이어를 装着한 “사톨·와곤”(往復列車乘用貨物自動車)이라고 呼稱되는 것으로서 하이웨이도 走行可能이고 軌道上에도 走行可能이란 特殊한 車輛과 裝置, GY社는 조오지어州 칼포운에 있는 同社의 巨大한라 텍스貨物터미널과 서어비스센터에서 라텍스運搬의 뱅크車의 往復輸送용으로 이 多用途車輛을 使用하고 있다. 이 라텍스는 이地方에서 生産되고 있는 용단용의 포움러버의 안을 붙이는데 使用된다. 타이어電車가 日本에도 登場하는 메라. 美國版의 타이어列車라고 일컫는 마다.

◆ 美타·튜業界의 72年豫測 大幅增

파이어스톤社의 레이몬드 C. 파이어스톤 社長은 72년과 71년의 美國 타이어·러버 등의 狀況에 對해서의 記者會見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72년에 시작되는 經濟成長은 새로운 豫想外의 것이 될 것이라한다. 인플레이는 微增으로 끝나고 金利는 下向할 것으로 豫想되고 販賣投資는 減少傾向으로 되고 個人的貯蓄, 銀行間의 流動은 增加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의 基本的問題에 根據하여 美國 타이어界의 71년의 最終의인 出荷高는 2억2千7百萬本の 記錄의인 것으로 되고 더우기 72年度에 있어서의 2억3千7百萬本에 달하는 出荷가 豫상된다.

이中, 승용차용타이어는 1억9千2百萬本, 이 數字는 71년의 出荷量 1억8千5百萬本에 對해 6%의 增, 트럭, 버스용타이어의 71년의 出荷量은 2千8百40萬本에 對해 7%增의 3千50萬本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自動車의 販賣와 生産面으로부터 推定한 것인데 大體로 如斯한 數字로 美國內의 타이어産業이 發展할 것으로 見積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우기 파이어스톤社에서는 시이트벨트, 프레에키, 라이닝구 등의 自動車用 고무 部品을 生産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3~4%의 增加가 될 것으로 見積되고 있다 美國의 타이어界는 이 發表로 보드라도 상당히 強氣를 갖고서 72년의 出荷量을 見積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 利子만도 2千2百여億

國內企業 81.8%가 借入依存

우리 나라 기업들이 자본력의 취약으로 전체外形의 81.8%나 他人資本(負債)에 의존하고 있으며 私債 銀行 借款등의 利子만도 年間 外형의 18.2%나 지불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國稅廳이 지난해 조사결정한 70년도 외형거래 1억원 이상의 1천4백45개 法人들에 대한 課稅실적자료에 의하면 이들 법인들의 지난해 외형거래는 모두 1조2천65억원이었는데 이 중 負債는 9천8백72억2천5백만원으로 外形의 81.8%, 70년의 他人資本依存度 80.4% 보다 더욱 심화됐음을 보였다.

한편 私債의 利子지불액은 1천4백44억원 (11.9%)으로 69년의 1백74억3천1백만원 (1.9%) 보다 커지고 있는 반면 銀行및 借款의 利子支拂額은 7백60억3천4백만원 (6.3%) 70년의 13.6% 보다 줄어 들었음을 보였다.

接待費 機密費는 2백10억8백만원 을 (1.7%) 廣告宣傳費로 83억6천7백만원 (0.7%) 을 지출했는데 接待·機密費는 69년보다 0.2%가 줄었으나 廣告宣傳費는 0.1%가 는것이다.

◆ 西海産業高速化道路 착공

4억 들여, 全州~南原間 鋪裝도

全北道는 올해 4억원을 들여 서해안 산업고속화도로와 全州~南原간 全州~井邑간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裡里를 잇점으로 金堤, 扶安 高敞을 이어 光州로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화도로는 노폭 11미터로 포장되며 연차적으로 시공, 75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全州~南原간 도로포장공사는 금년내에 완공할 것이라 한다.

◆ 10個路線 千4백 km

世銀借款 5백80만弗 들어

建設部는 世銀(IBRD) 借款 5백80만달러에 의한 高速道路조사사업을 1월부터 本格的으로 착수한다. 1월 20日 관계당국자에 의하면 世銀당국은 최근 우리 나라에 새로이 建設할 高速道路조사사업의 妥當性조사와 실시設計를 맡을 美國系技術用役團의 선정을 마치고 月內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支援할 것이라고 通告해 왔다 한다.

이에 따라 建設部는 이미 확정된 世銀借款 5백80만 달러로 ① 새말~江陵간 嶺東 第2區間 1백킬로와 三陟~東草간 東海北部線에 97킬로의 두 高速道路에 대한

실시 設計를 오는 10월까지 서둘러 끝내고(소요外資80만달러) ② 原州·大邱·馬山間을 비롯한 10개路線에 1천4백킬로의 新高速道路건설 妥當性조사도 아울러 실시 내년 4월까지 마친 다음(1백80만달러소요) ③ 그 중 優先順位가 높은 9백킬로의 路線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내후년 8월 사이에 設計를 실시(3백20만달러소요) 늦어도 75년부터 着工할 계획이다.

建設部가 새로운 次期高速道路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10개路線 1천4백킬로의 路線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킬로)

- ▲大邱·馬山間 104 ▲原州·大邱間 262 ▲天安·群山間 146 ▲浦項·三陟間 223 ▲서울·金泉間 253 ▲堤川·淸州間 126 ▲仁川·水原間 47 ▲原州·忠州間 55 ▲木浦·順天間 141 ▲羅州·康津間 43

◆ 드라이버用除雪삽

「오너 드라이버」의 「알루미늄」製 除雪삽이<사진> 美國에서 發賣되고 있다.

자루는 木製이고 삽은 튼튼한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다. 길이는 33센티로 삼끝엔 10×12인치의 칼날이 달려있으며 눈에 파묻힌 「타이어」를 간단히 파낼 수 있다.



또 도로의 얼음을 깨는데도 쓰여지며 사용후엔 「트렁크」에 넣어둘수 있게 되어 있어서 녹쓰는 일이 없다. Chicago Metallic Division of Alcan Aluminum Corporation.

◆ 自動車 연내 百% 國產化

新進서 엔진·東洋機械선 밋손製作

商工部는 올해안으로 自動車國產化比率를 42% 達成함으로써 1백%까지 끌어올릴 計劃이다.

이에 따라 엔진 15% 밋손 7%, 비디 16%, 其他 4% 등을 各各 國產化할 方針인데 昨年末까지의 國產化目標은 67%였으나 밋손등의 國產化가 늦어졌기 때문에 58%에 그쳐 올해에는 自動車엔진은 新進이 5百萬\$의 借款에 의한 施設導入이 6月末까지 끝나며 밋손은 東洋機械에서 이미 試製品이 나오고 있는 實情이다.

이밖에도 비디는 起亞産業 및 新進·現代·亞細亞등 4개 會社에서 各者製作케될 것이며 기타 部品은 專門化및 系列化공장에서 供給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 교통법규위반 신고센터 문열어

서울시는 교통소통및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시민교통의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시 관광운수국 운수지도과에 교통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월 17일부터 운영하는 민원신고센터는 시민들이 교통 이용과정에서 운수법규 위반사항 전반에 걸쳐 신고하는 점을 시정하게 된다는 것—.

신고전화번호는 (74) 8482—.

특히 승차거부택시에 추월과 법규위반을 밤먹듯하는 약질택시와 버스들을 차제에 신고해서 비릇을 단단히 고쳐주도록—.

◆ 三換企業등 3개社參加

자카르타道路工事入札에

오는 7월 15일 실시되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보골~짜아워간 54km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제입찰에 우리나라의 삼환기업·대림건설·현대건설등 3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ID 차관자금 3천8백만 \$ 중 2천만 \$ 가 투입되는 이 도로(2개 공구)는 4차선의 국제수준 고속도로이다.

◆ 雜誌人大會성황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잡지인대회가 한국잡지협회와 한국잡지 기자협회주관으로 4월 20일 하오 2시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렸다.

잡지관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尹冑榮 문화공보부장관은 洪景模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어떤 言論 보다도 雜誌가 社會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치하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민의 총화물 이룰 수 있는 言論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吳在暲(기독교방송사장) 趙德松(조선일보논설위원) 趙演鉉(韓國도서잡지윤리위원)씨의 기념강연이 있었다.

◆ 乘用車國產化보류

GM進出계기 새育成計劃마련

商工部는 美國GM社의 對韓合作투자 진출을 계기로 올해 안으로 완전 國產化키로 했던 승용차 국산화계획을 일단 보류키고 하고 국산가능 자동차부품의 양산체제확립을 비롯한 새로운 자동차 공업육성개발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4월 15일 商工部당국자는 신진자동차와 合作제휴한 GM社 및 現代自動車와 合作사업에 곧 착수할 포드社가 아직 國產化가 되지 않고 있는 金型엔진등 部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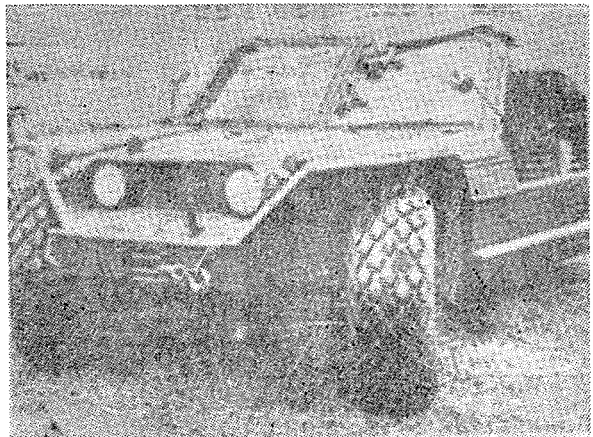
엔진만 생산키로 하고 기타 국내 생산이 안되는 部品는 自動車및 部品의 輸出外貨로 수입사용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年末까지 1백% 國產化를 목표로했던 승용차 國產化계획은 일단 보류되게 되었다고 알렸다.

商工部는 이에 따라 GM·新進의 外資도입 인가신청을 기다려 당초의 승용차國產化계획을 전면제검토, 合作투자회사에서 건설생산키로한 엔진과 國產가능부품의 量產체제를 확보토록 하여 이들 部品의 수출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自動車 공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으로 있다.

그런데 商工部가 1백45개부품(SKD 기준)을 대상으로 추진한 71년말 승용차국산화비율은 .58%이며 年内로 엔진·및선등이 생산되면 국산화실적은 82%에 이르게 된다.

◆ 美陸軍의 高速접

미육군당국에서는 최근 시발후 12초만에 시속 96km의 속도를 내는 XR 311 型 접의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고, 이 접의 뒤에는 8기통의 엔진이 장치돼 있으며 보통 차보다 납작하고 바퀴간의 사이가 넓혀져 있다. 타이어 크기도 다른 것보다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 自家用車 62% 늘어

서울市 5年集計 交通難深刻

지난 5년동안 서울에서는 하루평균 26대꼴로 각종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차량의 62%가 서민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먼 자가용 차량으로 밝혀져 앞으로 자가용차량의 신규허가를 조정하지 않는한 서울시내의 교통난은 날이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 같다.

1월 12일 서울시에 의하면 71년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모두 6만7천2백75대로 1년동안 6천8백33대가 늘었으며 66년에 비하면 5년 동안 무려 4만6천6백37대가 늘어 있어 이같은 추세로 계속 차량이 증가할 경우 앞

으로 4년후인 75년께의 서울시내 차량수는 지금의 품에 가까운 10만대를 돌파, 도로율이 낮은 서울의 교통소통문제는 심각해질것 같다.

지난 한해동안 새로 등록된 각종 차량의 용도별수를 보면 자가용 5천74대(승용차 3천7백49대) 영업용 1천5백15대(택시 7백43대 버스 6백 11대) 관용 2백 44대로 나 타났다.

◆ 900弗짜리 自動車 보급

「포드」自動車會社は 내년도부터 臺當 9 백달러정도의 廉價승용차를 韓國을 비롯한 自由中國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 「아시아」 地域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5월 14일 보도 되었다.

「워싱턴·포스트」紙는 「피레이드」라는 題目으로 日曜特輯을 실고 「포드」會社の 「아시아」·太平洋地域담당 책임자 「빌·버크」씨의 말을 인용, 새 車는 自轉車나 小型지프에 대응되도록 「히터」나 自動變速 장치 같은 사치품은 장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組立式 미니사이클

日本の 「다이하쓰」 자동차 판매는 최근 「레지」用 조립식자동차를 신발매했다. 新製品은 짐으면 輕乘用車에도 적재할 수 있으며 동사에서 자동차로 교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使用者를 대상으로 開發했는데 가격은 2만 7천 9백圓이다.

◆ 高速道 건설 外資 위주로

內資는 國道鋪裝에 集中투입

건설부는 지금까지 주로 內資에 의존해 왔던 高速道路 建設사업을 올해부터 外資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한편 그대신 약 7백억원의 內資를 國道鋪裝建設사업에 重點投入할 방침이다.

1月 4일 건설부에 의하면 高速道路建設사업은 새해부터 IBRD(世銀) 등 외자에 의해서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그대신 내자 7백억원을 확보, 당초 오는 80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국도포장 10개년 계획을 오는 76년까지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국도포장 10개년 계획단축안에 의하면 7백억원의 내자를 확보, 72년에 약 3백50 km의 국도포장을 실시하여 27%까지 포장률을 끌어 올리고 오는 76년까지 전국 8천1백22km의 국도포장을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다.

◆ 어린이 天國된 繁華街

釜山光復路 첫車 없는 날

자동차 공해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차없는

거리 운동이 1月 29일 釜山에서 처음실시됐다.

釜山市는 항도 최대의 민화가인 光復路와 남북을 관통하는 거리(光復洞入口에서 국제시장 十字路까지) 거리에 대해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오부터 24시까지(밤 12시)를 차없는 날로 정하고 29일 정오부터 첫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光復路에는 11시개부터 모든 차량통행이 금지됐고 남포동 충무동 부평동앞을 통하는 모든 차량은 대청동과 부평동을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이거리의 자전거 「리어카」의 통행도 금지되었다.

◆ 交通질서 스스로 지키자

業者·운전자·車掌이 앞장

서울교통개혁 추진위원회(회장 襄英俊)는 1月 4일 오전 시민회관에서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 쉼기대회를 열고 혼란한 교통질서를 자율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쉼기대회는 시내운수업자, 운전자, 차량등 운수관계종사자 3천여명이 참석,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채택했다.

◆ 6個 高速道 완공

76년까지 1, 650億투입, 고속화道路 619km도

建設部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에 全州~順天·釜山~順天·原州~大邱 등 6개 고속도로 총연장 1천 km를 완공하고 81년까지 木浦~順天·서울~金泉·天安~群山 등 8개 고속도로 9백44km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2月 14일 건설부가 손질을 끝낸 도로개발계획에 의하면 3차5개년(72~76년) 기간중에 1천6백50억원을 투입, 고속도로 1천 km와 고속화도로 6백49km, 도로포장 3천3백 km를 각각 완공키로 되어 있다.

건설부는 이와같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IBRD(世銀) 차관 1백80만 \$로 올해부터 73년 9월까지 고속도로건설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IBRD와 ADB 등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의 도입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건설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위 km)

◇ 76년까지 완공 ▲전주~순천=189 ▲원주~강릉=100 ▲부산~순천=177 ▲숙초~포항=280 ▲대구~마산=92 ▲원주~대구=162

◇ 81년까지 완공 ▲인천~수원=51 ▲원주~춘천=193 ▲천안~군산=146 ▲목포~순천=141 ▲제천~청주=110 ▲서울~김천=220 ▲나주~당진=43 ▲포항~경주=40.

◆ **빈차 태워주기 運動**

서울·釜山·大邱등서

치안국은 2월 3일 대도시의 출근러시 아위에 학생과 통근자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 빈 관·자가용 및 직장 통근버스 태워주기 운동을 펴기로 하고 그 실시요령을 관하 경찰에 시달했다.

이날 시달된 빈차태워 주기운동은 우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과釜山·大邱등 3대도시에서 실시하는데 이들 3대도시에는 택시승차대와 같은 승차 서비스 장소를 요소마다 설치하고 경찰안내원을 배치, 빈차로 운행되는 관·자가용 통근버스의 운행방향을 확인, 무료로 태워주게 된다.

치안국은 이 운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빈차태워 주기 실시요령을 관계기관에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교통 경찰관들을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승차 서비스장에 배치, 빈차태워주기 운동이 습관화될 때까지 이 운동을 계몽 지원한다.

◆ **原價 10% 節減운동**

經濟界 生産性向上다짐...啓蒙키로

불황타개를 위해 산업합리화운동을 벌여온 경제계는 범 국민운동으로 원가 10% 절감운동을 펴다.

지난 2월 11일 전경연,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회장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상승 일로에 있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인들 스스로가 현재의 낙후된 경영방법을 일소하고 선진국의 경영방법을 도입, 경영을 합리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와같은 原價절감 方案의 거국적인 「무드」를 造成하기 위하여 啓蒙事業과 아울러 原價절감을 直接指導하는 機動班을 編成하겠다고 밝혔다.

10% 原價절감을 위해 經濟界는 ① 原價절감의 具體的 對策을 提示하고 企業經營의 長期戰略能力을 培養시키며 健全經營基盤을 構築하기 위해 企業人을 위한 經營合理化教育을 600個 主要企業體의 最高經營者를 대상으로 9個 産業都市에서 2個月間 실시하고 ② 輸出戰略상품등 主要 10個品目の 工程管理改善을 위한 機動經營指導班을 편성한다.

③ 경영개선에 성공한 제형적인 사례집을 발간, 보급한다. ④ TV, 「메스컴」에 경영교실을 마련하고 ⑤ 現在業界에서 추진되는 구두쇠운동 영화제작, 포어 및 포스터 등을 모집하며 ⑥ 생산원가인하운동에 전국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쟁기대회를 열고 産業合理化運動大綱을 마련할 예정이다.

◆ **原價節減 적극支援**

2월 15일 李洛善商工部長官은 最近 4個經濟團體가 主軸이 되어 汎經濟界가 展開하고 있는 原價 10%節減運動이 成果를 거두도록 實踐事業에 대한 支援은 물론 主要業種의 標準原價調査發表등 經營管理指標를 提示하는데 모든 支援과 協助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번 大韓商議 全經聯·實協·中小企協中央會등 4個團體는 스스로 經營難打開과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해 舉國의으로 原價 10%節減運動을 展開기로 다짐한바 있다.

특히 최근 美國의 달러 防衛政策과 이에따른 國際通貨波動, 섬유파동 등 國際的環境의 急變과 國內의으로 여러가지 原價上昇要因이 늘고 있는데 對處, 汎經濟界가 共同으로 전개하는 이 運動에 대해 李長官은 時期에 맞는 적절한 처사라고 찬사를 보냈다.

◆ **道路 포장율 12.1%**

地方·市郡道路는 겨우 5%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도로의 포장율이 도로 총연장의 12.1%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 및 시·군도로는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3월 7일 韓國道路公社에서 밝혀진 지난 1월말현재 전국 도로현황에 따르면 전국도로 총연장 4만3백48km중 포장된 도로는 3천9백68km로 포장율이 12.1%에 지나지 않으며 미포장도로는 3만2천9백60km, 미개수도로가 3천4백24km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도 일반국도는 8천1백22km 중 32.3%인 1천9백24km만 포장됐고 미포장도로 6천1백58km, 미개수도로가 40km며 특별시도는 5천4백76km 중 포장도로가 7백24km로서 포장율이 15.1%, 미포장도로가 4천4백77km, 미개수도로가 2백77km이다.

특히 지방도로는 1만8백94km중 포장도로가 1.9%밖에 안되는 2백2km이며 미포장도로 1만1백93km, 미개수도로 4백99km, 시·군도로는 1만5천2백15km 중포장도로가 4백76km로 포장율이 4.1%, 미포장도로가 1만2천1백34km, 미개수도로가 2천6백5km로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포장이 저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의 도로현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포장도로 단위 km)

◇서울

▲일반국도=120(116) ▲특별시도=5,167(653)

◇釜山

▲일반국도=72(65) ▲특별시도=309(71)

◇京畿

▲일반기국도=734(339) ▲지방도=1,425(83) ▲시·군도=2,095(104)

◇江原

▲일반기국도=1,545(243) ▲지방도=1,106(21) ▲시·군도=942(1)

◇忠北

▲일반기국도=665(106) ▲지방도=817(7) ▲시·군도=1,038(29)

◇忠南

▲일반기국도=736(176) ▲지방도=974(8) ▲시·군도=1,621(25)

◇全北

▲일반기국도=647(79) ▲지방도=1,304(19) ▲시·군도=1,123(35)

◇全南

▲일반기국도=880(119) ▲지방도=1,591(3) ▲시·군도=2,530(60)

◇慶北

▲일반기국도=1,448(298) ▲지방도=1,831(33) ▲시·군도=2,245(131)

◇慶南

▲일반기국도=1,016(149) ▲지방도=1,557(28) ▲시·군도=2,031(56)

◇濟州

▲일반기국도=259(234) ▲지방도=270(247) ▲시·군도=1,360(35)

◆美, 上位 9社 70年業績

71年 여름收束된 美國 고무企業上位 9社(굳이어, 파이어스톤, 유니로이얄, 굳릿치, 제네랄, 암스트롱, 코퍼어, 호호옥, 멘스필드)의 1970年度中에 있어서의 營業成績에 依하면 9社의 總賣上合計高는 9,746,888불(換算 ¥ 3兆5千88億7千9百萬) 69年度는 \$ 9,852,449(換算 ¥ 3兆5千4百68億8千百萬)에 達해 美國 95 브란드의 90%를 占한다고 하는데 1970年度는 後半에 自動車會社(포오드, 제네랄, 클라이슬러어等)의 스트라이크가

3個月이나 계속했다는 등의 事情도 있어서 各社의 利益率은 前年の 69年度에 比해 減少惡化했다.

美國의 報道는 各社의 事情에 對해

① 販賣코스트의 上昇

② 自動車스트라이크의 로스

③ 유니로이얄은 各社의 스트로 30年만의 下落

④ 제네랄의 好利益率 17.3%는 特殊現象이었다

⑤ 69年度の 各社의 利益은 코스트上昇으로 따라갈 수 없었다.

⑥ 勞賃等諸費의 上昇이 激化했다.

GY社의 推計에 依하면 70年度는 1억8千萬本の 交換타이어의 販賣가 計數되어 數量으로서는 亦是 世界1의 座를 固守하고 있다.

굳릿치와 로이얄 兩社는 前년에 比해 全然 半減 GY와 파이어스톤 兩社만은 對前年比僅少로 머물고 있다. (別表參照)

利益率로는 日本의 各企業도良好

賣上高만으로 日本의 고무企業과 對比하면 BS는 6位로 들고 橫濱고무는 8位, 東洋고무는 10位 住友고무도 13位(어느 것이나 別記日本企業을 順에 包含해서)에 相當한다. 그러나 利益率로는 美日上位 13億中 BS의 14%이 더어나게 好數字로 되어있다.

다음에 yokohama 고무의 8% 4, Toyo 고무의 4.9%도 美國의 어느企業 보다도 上位이다.

Sumitomo 고무의 3.7%도 좋은 便이기는 하나 上位로부터 計數하면 6位이다.

美國 9社全體의 利益率은 12%의 下落으로 되어있다 또 賣上高에 있어서의 下落은 1969년에 比해 ¥ 380億의 減少를 보이고 있다.

世界의 自動車數는 約 2億5千萬 臺餘라고 하며 그約 半數를 占하는 9千萬臺가 美國의 所有이기 때문에 世界의 타이어需要는 美國의 2倍強으로 見積되나 그 最大市場인 美國서도 別記와 如히 利益의 下落이 있고 또 마이어스벨티드 타이어가 라디알 타이어로 71年以降 그 企業動向에도 큰 變化가 齎來될 것이라는 見解가 큰 注目を 끌고 있다.

美國타이어企業 1970年度業績

(付日本 4企業을 引用)

	賣 上		利 益		利益率 (%)
	(\$千)	(¥千)	(\$千)	(¥千)	
굳 이 어	3,194,554	1,150,039,440	129,210	46,515,600	4.1
파 이 어 스톤	2,334,717	840,497,976	92,764	33,395,148	4.0
유 니 로 이 얄	1,555,594	560,013,840	24,121	8,683,550	1.6
굳 릿 치	1,204,754	433,711,440	15,869	5,712,840	1.3
제 네 랄	981,092	353,193,120	41,221	14,839,560	4.2
브 린 저 스톤	—	151,113,000	—	21,355,000	14.1
암 스톤 롱	186,084	66,990,276	3,933	1,416,024	2.1

요꼬하마	—	64,941,683	—	5,466,720	8.4
코피어	116,283	41,862,024	1,351	486,432	1.2
토오요오	—	34,895,492	—	1,721,221	4.9
모호옥	87,373	31,454,280	1,377	495,720	1.6
멘스펠트	86,435	31,116,744	2,604	937,548	2.0
스미도모	—	22,989,242	—	872,244	3.7
計	9,746,888	3,508,879,140	—	—	—

美國타이어企業 1969年度業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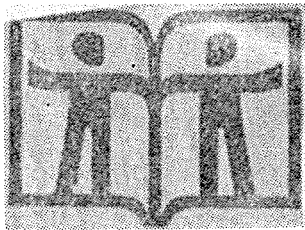
	賣 上		利 益		利益率 (%)
	(\$千)	(₩千)	(\$千)	(₩千)	
군 이 어	3,215,334	1,157,520,240	158,202	56,952,720	4.9
파 이 어 스톤	2,278,909	820,407,384	116,686	42,006,816	5.1
유 니 로 이 알	1,553,826	559,377,360	46,568	16,764,480	3.0
군 릿 치	1,229,139	442,490,040	37,801	13,608,360	3.1
체 내 랄	1,087,800	391,608,000	35,131	12,647,160	3.2
압 스트 롱	201,109	72,399,132	5,541	1,994,760	2.7
코 피 어	116,001	41,760,036	1,897	683,028	1.6
모 호 옥	86,899	31,283,640	1,644	591,840	1.9
멘 스 펠 드	83,432	30,035,556	2,616	941,652	3.1
計	9,852,449	3,546,881,388	—	—	—

◆ 저림·良質의 圖書보급

유네스코제정 「世界圖書의 해」
國內서도 갖가지行事

1972년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世界圖書의 해(ITY)」

遞信部가 올해의 첫 기념우표로 「세계 도서의 해기념」 우표를 결정, 1월5일자로 이미 발매한 뒤를 이어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72년도 의 칫 「對話」를 「바람직한 圖書發展의 방향」으로 설정



「유네스코」가 제정한 世界圖書의 해마크

8, 9일 이를 동안의 세미나를 가졌으며 「유네스코」는 작년 12월에 구성한 「ITY特別委員會」의 첫모임을 18일에 개최, 올해의 ITY 事業計劃을 검토할 예정이다.

70년 11월 「파리」本部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제16차總會는 72년을 「世界圖書의 해」로 제정할 것을 가결, 會員國의 정부와 민간단체에 圖書와 出版文化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각국의 사정에 따른 행사와 사업을 벌여줄 것을 권고했다.

궁극적으로 「圖書革命」을 제창, ① 현대사회에서의 圖書의 역할에 대한 汎世界的 關心의 집중 ② 저렴한 定價로 良質의 도서를 더 많은 독자들에게 보급할 것을

2大목표로 한 ITY는 이 목표에 따른 ① 著作權에 입각한 著述 翻譯의 장려 ② 圖書出版 및 보급과 圖書館開發 ③ 讀書習性的 함양 ④ 教育의 國際이해 및 평화적 協調에 봉사하는 도서의 역할등 네가지 主題를 제시했다.

「유네스코」韓委는 ITY計劃에 의해 지난 11월 출판계 도서관계 학계 문화계인사들을 초빙한 간담회에서 72년의 圖書文化개발을 위한 토의를 가진 뒤를 이어 12월의 72차 執行委에서 「ITY特別委員會」를 구성했다.

文敎部社會教育局 文公部文化局 國立中央圖書館 出協 圖協 雜協 文協 마을文庫 등 8개 기관 및 단체와 鄭鎮肅 柳益衡 金世翊씨 등 출판 도서 문화인사 수명으로 조직된 이 特別委員會는 15일까지 각기관 단체의 ITY 사업계획을 접수, 18일의 첫모임에서 이를 검토, 상호 협조와 협력을 조정한다.

특히 이 모임에서는 出版界의 年來적인 숙원으로 當局에 수차 건의한 出版圖書開發委員會의 組織이 주요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11월의 각계간담회에서부터 논의된 이 開發委의 구성은 政府가 설치하지 않을 경우 民間메이스로라도 組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TY 행사의 주축 단체가 될 出版文化協會(회장 鄭鎮肅)는 同協會의 창립 25주년 이 되는 3월 15일을 전후로 「세價値觀확립과 圖書出版」 세미나를 열고 「IBY 사업特別推進委」를 구성하는 한편 모텔書店실치, 「책 (p.11에 계속)